

佛바르조 교수 “〈직지〉, 한국에 반환해야”

청주고인쇄박물관 10월 13일 직지 국제컨퍼런스서 주장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한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내에서 제기됐다.

10월 13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홍덕사지 발굴 30주년 기념 직지(JIKJI)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프랑스 도미니크 바르조 파리 소르본대 교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직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직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췄다. (직지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조 교수는 "20세기 초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여온 직지 반환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프랑스가 고문서의 보존 측면에서 자국의 우월적 역량을 강조해 반환에 반대하지만, 국제법상 이 논란의 결론은 확실해 보인다"며 거듭 반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바르조 교수는 이어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구텐베르크 활자가 최고라고 인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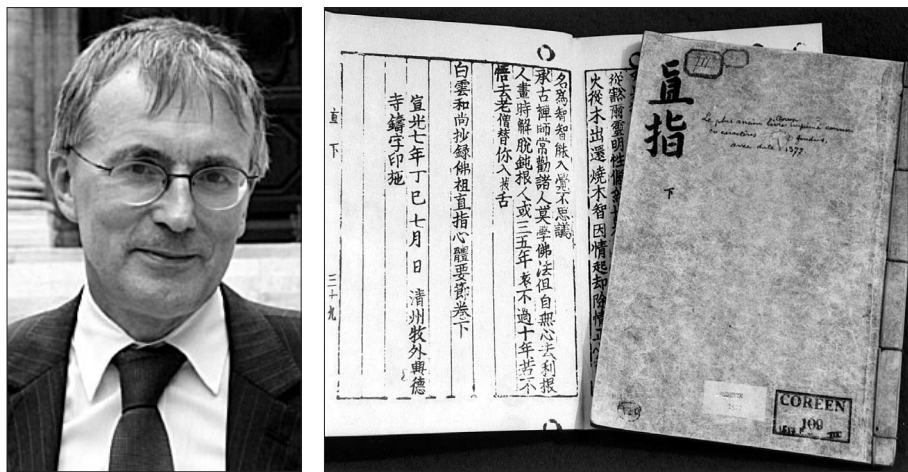
나 1377년 금속활자를 사용한 책이 한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점에서 이런 확신도 무너졌다"며 "기술적 진보에서 유럽이 아시아국가보다 앞선다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조 교수는 이어 "고려시대보다 더 앞선 신라시대부터 활자를 이용한 실험이

프랑스 “한국 역량부족” 논리 비판 유럽 위주 기술진보론 경계 목소리 “신라시대부터 활자인쇄 실험했다”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속활자의 제조와 이를 이용한 인쇄 실험이 한국에서 이미 1100년 경 진행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리비에 드로봉 스트라스부르 고등미술장식학교 교수도 "서양 초기 활판 인쇄



도미니크 바르조 파리 소르본대 교수(좌)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중인 (직지).

술은 개인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영향을 통해 점차 완성된 산물"이라고 분석, 직지가 세계 인쇄술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남윤성 전 청주MBC 편성국장도 "기초 자치단체인 청주가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직지 세계화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첫 단계로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국장은 "금속활자 발명국인 코리아와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며 "직지를 인류 문화사적 의미에서 위상을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국장은 "금속활자 발명국인 코리아와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며 "직지를 인류 문화사적 의미에서 위상을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열린논단, '삼처전심' 한국적 기원 모색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10월 22일 신사동 MGT타워 불교평론 강의실에서 '삼처전심의 한국적 기원'을 주제로 10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논사는 김성욱 UCLA대 박사가 나선다. '삼처전심(三處傳心)'은 부처님이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전법을 했다는 말로 다자탑 앞에서 자리는 나누어 앉은 일(多子塔前分半座),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 어보인 일(靈山會上舉拈花),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든 뒤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일(雙林下櫛示雙趺)이 그것이다. '삼처전심'은 선종이 불교 정통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지만 인도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불교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불교평론 측은 "이번 발제를 통해 선불교의 문헌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자료와 맥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짚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불교교육연합회, 제45차 교학연구발표회

불교교육연합회(회장 보광)는 10월 16일 팽택 청담중학교(교장 정길자)에서 제 45차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학연구발표회에는 불교교육연합회 산하 29개교 교장 및 교보사, 재단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송재근 청담중 교보사의 교학 연구논문 '교과내용 재구성성을 통한 일반교과에서의 불교교육 방안 및 사례' 발표와 함께 공개수업 참관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전시작품 관람 등이 진행됐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불교종합학교 연합기구로, 총 13개 법인 29개 학교(대학교 1, 고등학교 14, 중학교 13, 초등학교 1)가 가입되어 있다. 종합학교 학생들의 불교적 인격교육을 위해 매년 △불교교육포럼 △교학연구발표회 △교직원수련대회 △교법사연수회 △불교학생간부수련대회 등을 실시해왔다. 노덕현 기자

'완도 법화사지 재조명' 16일 국제학술대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10월 16일 전남 완도 장보고기념전시관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법화사 네트워크와 장보고'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법화사(원)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완도 법화사지의 성

격 규명과 활용 방안이 모색됐다.

장보고기념사업회 김성훈 이사장의 '해상에서 본 완도의 위치', 장보고해양경영상연구회 김문경 명예회장의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과 관음신앙' 기초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양양 선림원지서 9세기 통일신라불상 발견

문화재청 "당대 출토지 분명한 금동불 가운데 가장 큰 것"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에서 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금동불상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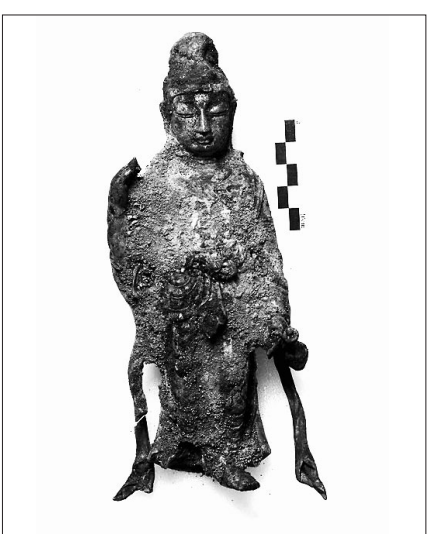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10월 14일 양양군과 한빛문화재단이 발굴조사 중인 서면 서림리 미천골 내 '선림원지'에서 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을 출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불상은 대좌를 포함한 높이가 50cm가 넘는 대형 불상으로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거나 정병의 목을 쥐고 있는 기존 금동불과 달리 정병 고리를 만들어 손에 건 모습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광배와 불상, 대좌도 모두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9세기 금동불로서는 상당히 크고 예술적 감각도 상당히 뛰어난 불상"이라며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가 끝나고 금동불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국가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에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금동불에 대해 "출토지가 분명한 금동불이 100여 점 있으나 이번 금동불처럼 크기가



선림원지서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금동불상'

큰 것은 아직 없다. 현재 출토지가 분명한 금동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 경우도 대좌를 포함해 35cm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배와 불상, 대좌가 모두 남아 있는 것도 드문 예"라며 "보살상의 장식을 비롯해 광배와 대좌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정병의 고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경우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림원지에서는 금동불과 함께 출토된 '보물 제447호' 선림원지 부도의 육 개석도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경매 나온 불교문화재 대거 박물관으로

<월인석보> 등 한글박물관에, <반야심경언해> 등 4점은 사찰로

국립민속박물관이 10월 13일 정약용 필적 <하피첩>을 언론에 공개하며 9월 경매에 나온 불교 서적에 대한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월 경매에서는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에 소속된 미술관, 종교재단, 사립 미술관과 박물관, 공공성을 띤 비영리 기관과 단체인 응찰이 허용됐다.

정약용 필적 하피첩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았던 <월인석보 권9, 권10>은 지난 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사들였다. 이 박물관은 월인석보와 선종영가집언해 권하를 각각 7억3천만원,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함께 편찬한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먼저 발행한 불경 언해서로 조선 초기 국어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선종영가집언해>는 당나라 때 현각선사가 지은 불경을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대사가 한글로 옮겨 연산군 1년(1495) 찍은 책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매에서 <해동조계복암화상집적>, 김현성 필적, <대혜보각선사서>, <대승기신론의기>를 1억 500만~1억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와 함



월인석보

께 조선시대 불화인 보물 제1204호 '의경 등필수월관음도'를 18억원에 구입했다.

김현성 필적은 조선 중기 서화가인 김현성이 1614년 이종의 절구와 윤시 9편을 행서로 필사한 것이다.

또 조선 왕실 유물을 주로 취급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인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며 간행한 <지장보살본경>을 박물관 문화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외에 4점은 소유자가 사찰로 확인됐다. 양주 송암사는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구미 자비사는 <몽산화상법어약목언해>, 양산 통도사 전법회관 정각사는 <육경합부>, 대전 성현사는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을 각각 소장하게 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보> 제73집 원고 모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은 12월 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보> 제73집 원고를 모집한다. <불교학보>는 1963년 창간된 이후 매년 4회 발간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다.

이번 제73집은 불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에 관한 자유주제로 논문 마감은 10월 30일까지다. 불교문화연구원 발행으로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다. 다만 연구수주 표기 논문 제외한다.

투고 방법은 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논문 투고'로 신청하거나 '불교학보 온라인투고 시스템' (112. 175.69. 230/sobis/bghb.jsp)을 통한 것이다.

논문을 정식 발행을 위해 '불교학보 집필요령'에 따라야 한다. 논문의 본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각주분량 포함), 총원고지 150매 이내이다. (02)6713-5140 노덕현 기자

<정토학연구> 제24집 논문 모집

정토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인 <정토학연구> 제24집에 실릴 기고 논문을 모집한다. 주제는 정토, 신앙, 의례, 문화 중심의 불교관련 분야로 10월 31일까지 마감이다.

분량은 A4용지 15~18매로 워드프로세

서로 작성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10개, 영문 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현대 전원오피스텔 201호 한국정토학회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